

구마노 붓(熊野筆)을 통해 본 전통산업의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25학번 최O진, 민O현, 이O서, 조O은

구마노 붓(熊野筆)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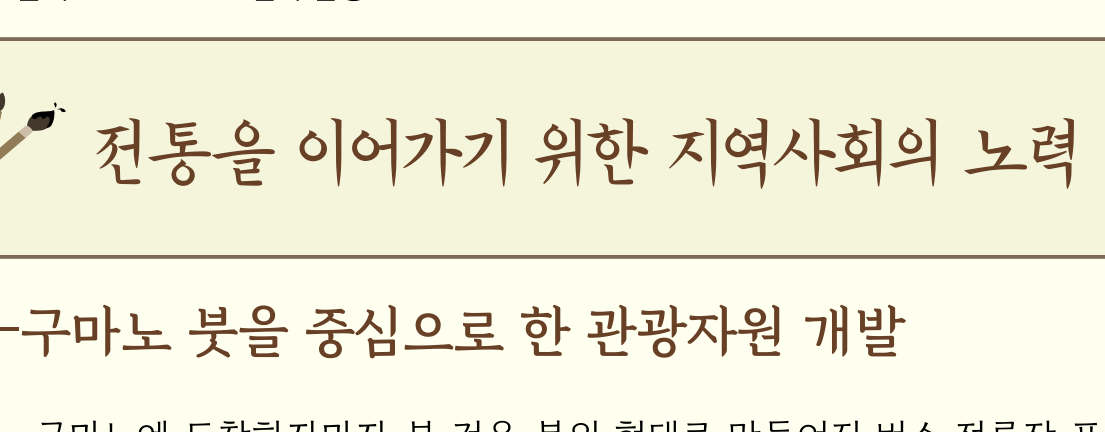
구마노 붓은 에도 시대(江戸時代)부터 약 180년간 전통을 이어온 히로시마(広島)의 대표적인 지방 공예품이다. 구마노에서는 '데카세기(出稼ぎ)'를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데카세기란 일정 기간 외지에서 생활하며 돈을 벌고 거주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데카세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간키(近畿) 지방에서 사들인 붓이나 먹을 팔았던 것이 구마노정(町)과 붓이 만나게 된 계기이다. 당시 붓 제작 기술이 뛰어났던 나라(奈良)의 장인으로부터 구마노 사람들이 붓 기술을 습득하여 자체적으로 붓을 제작하고 팔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구마노 붓 산업이 시작되었다.

들어가며

전통산업은 지역 사회에 뜻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본 답사에서 붓을 제작하는 장인 대부분이 구마노가 고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인에게 붓을 만드는 일을 시작할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대대로 만드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구마노붓사업협동조합(熊野筆事業協同組合)의 나카쓰 겐타로(中津健太郎)씨는 "붓을 제작하는 것은 여전히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일이고 우리는 구마노 붓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구마노 붓은 구마노 사람들에게 있어 단순한 산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마노 붓은 외부 행정이나 기업에서 의한 것이 아닌, 바로 구마노 사람들에게 의해 발전되어 지역의 전통이 되었다. 그들은 고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손님들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일을 하는 데에 충분하다는 뜻을 전하였다. 장인들은 자신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 기뻐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구마노 사람들 역시 구마노 붓을 아끼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전통산업은 현대에 들어서며 전반적으로 후계자 부족,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으로 침체하고 있었다. 세계경제포럼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공예 산업의 근로자 수는 1983년에 약 28만 명에서 2016년 약 6만 명으로 75%가량 감소하였다. 구마노의 전통 붓 산업 역시 이러한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중국에서 제조되는 저렴한 나일론 붓의 등장과 사슴, 너구리 등 동물의 털로 붓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의 마찰이 심화되어 털 공급에 차질을 겪는 등, 지역 사회의 중요한 전통인 구마노 붓 산업은 새로운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는 본 답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하며 구마노 붓 산업을 유지하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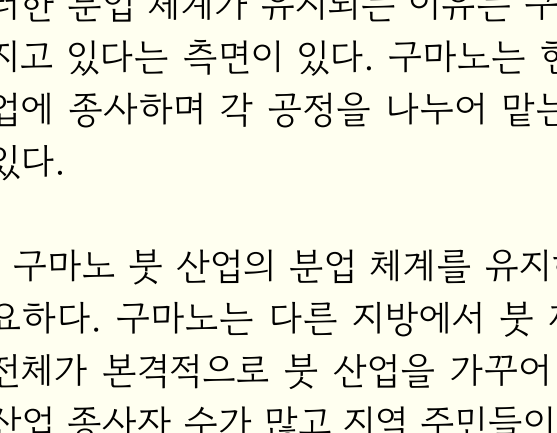
[사진 1] 붓 박물관 후데노사토코보(筆の里工房)에서 소개한 구마노 붓 제작과정 *출처: 2025.07.29 / 필자 촬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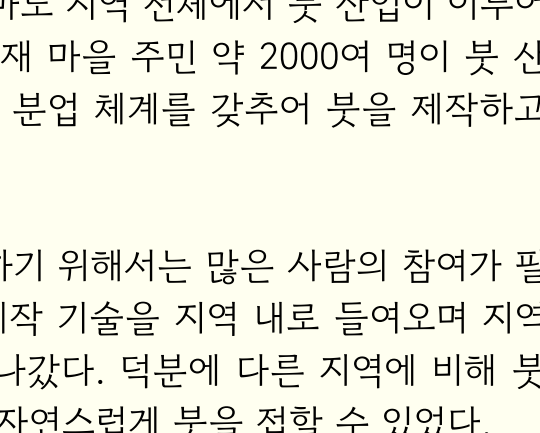
-구마노 붓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

구마노에 도착하자마자 본 것은 붓의 형태로 만들어진 버스 정류장 표지판과 붓이 새겨진 맨홀뚜껑이었다. 구마노의 지역 공예품이 붓이라는 것을 고려해 구마노에는 다양한 붓 형태의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붓 모양 캐릭터를 구마노 지역의 마스코트로 사용함으로써 구마노의 전통산업인 붓이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마노에서는 붓 가게, 붓 공장과 연계하여 매년 9월 말에 붓 축제(筆祭り)를 개최하고 있다. 붓 축제에서는 붓모를 만들 때 쓰이는 동물의 영혼에게 공양하기 위해 붓 무덤(筆塚)을 세우고 붓을 태우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외부인들이 마을을 방문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 2] 동물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카키야마 신사의 붓 무덤(筆塚) *출처: <https://dive-hiroshima.com/explore/1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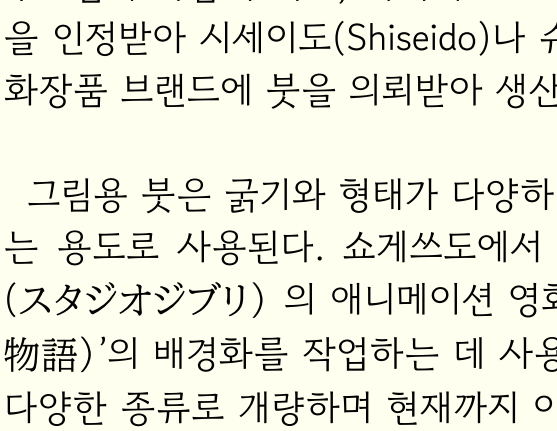
[사진 3] 그림이 그려진 맨홀뚜껑(위)과 붓 모양의 버스정류장 표지판(아래) *출처: 2025.07.28 / 필자 촬영

-마을 내에서 분업으로 이루어지는 붓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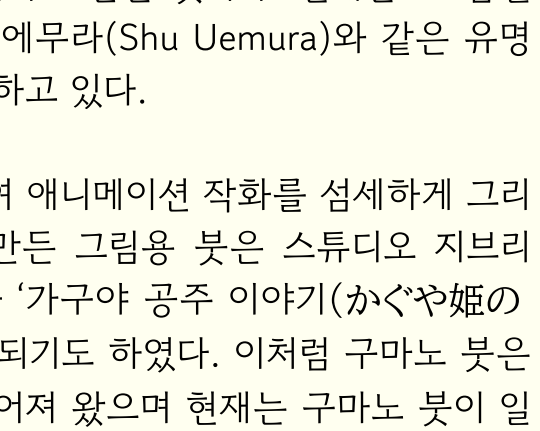
구마노 붓은 장인 여러 명이 붓 공정을 담당하는 분업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분업 체제로 인해 고품질의 수제 붓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구마노 지역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분업 체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구마노 지역 전체에서 붓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구마노는 현재 마을 주민 약 2000여 명이 붓 산업에 종사하며 각 공정을 나누어 맡는 분업 체계를 갖추어 붓을 제작하고 있다.

구마노 붓 산업의 분업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 구마노는 다른 지방에서 붓 제작 기술을 지역 내로 들여오며 지역 전체가 본격적으로 붓 산업을 가꾸어 나갔다.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붓 산업 종사자 수가 많고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붓을 접할 수 있었다.

일본화, 수묵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그림용 붓을 제작하는 공방 쇼게쓰도(松月堂)에서는 공정별로 방을 나누어 붓을 제작하고 있었다. 쇼게쓰도의 구니마사 유아(國政悠也) 씨는 "구마노 지역 안에서 재료를 공급하고 제작하고 있다는 것만이 구마노 붓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구마노에서 만 들면 굉장히 좋은 붓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믿어요." 라고 설명했다. 구마노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업화는 구마노 붓이 가지는 강점이자 지금까지 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요소 중 하나로서 현재까지도 이러한 분업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4] 구마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작 과정의 분업 *출처: 2025.07.28 /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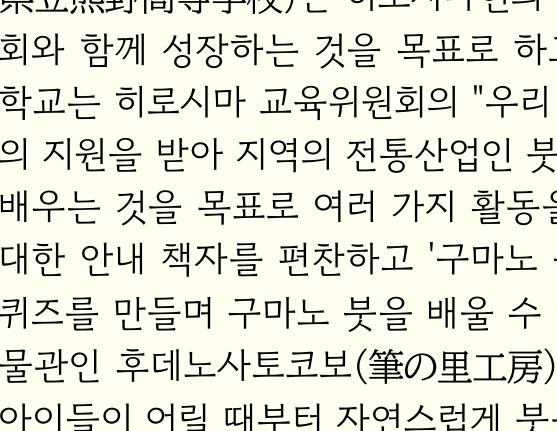


[사진 5] 붓의 제작 과정 중 털 다듬기를 진행하는 모습 *출처: 2025.07.28 /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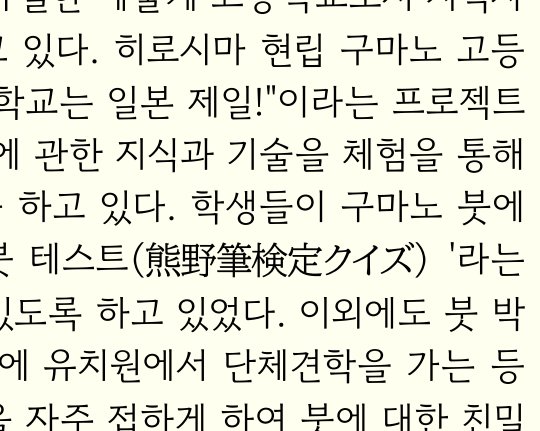
-다양한 용도의 붓 개발

현재 구마노 붓은 서예용, 그림용, 메이크업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마노 붓의 시작은 서예용 붓과 그림용 붓이었다. 그러나 서예용 붓은 일상에 쓰는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점차 감소하자 장인들은 서예용 붓을 만드는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메이크업용 붓으로 개량하였다. 메이크업용 붓은 너구리, 족제비 등 다양한 동물의 털을 장인의 기술로 부드럽게 다듬어 칩크, 아이세도 브러시로 만든 것이다. 현재는 그 품질을 인정받아 시세이도(Shiseido)나 슈에무라(Shu Uemura)와 같은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 붓을 의뢰받아 생산하고 있다.

그림용 붓은 굵기와 형태가 다양하여 애니메이션 작화를 섬세하게 그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쇼게쓰도에서 만든 그림용 붓은 스튜디오 지브리(スタジオジブリ)의 애니메이션 영화 '가쿠야 공주 이야기(かぐや姫の物語)'의 배경화를 작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마노 붓은 다양한 종류로 개량하며 현재까지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구마노 붓이 일본 붓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 6] 붓 끝이 뾰족하고 단단한 형태의 서예용 붓 *출처: <https://sgd-fude.net/>



[사진 7] 사슴, 너구리 털을 사용해 부드럽게 제작한 메이크업용 붓 *출처: <http://www.koyudo.co.jp/>

-전통 붓 산업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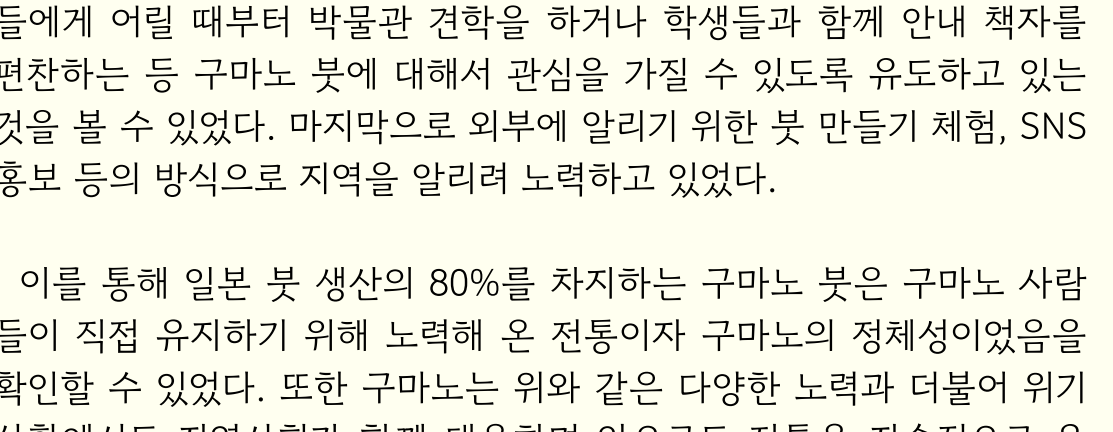
구마노 붓 장인들은 앞으로의 전통을 이어갈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히로시마 현립 구마노 고등학교(広島県立熊野高等学校)는 히로시마현의 유일한 예술계 고등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히로시마 현립 구마노 고등학교는 히로시마 교육위원회의 "우리 학교는 일본 제일!"이라는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전통산업인 붓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구마노 붓에 대한 안내 책자를 편찬하고 '구마노 붓 테스트(熊野筆検定クイズ)'라는 퀴즈를 만들며 구마노 붓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붓 박물관 후데노사토코보(筆の里工房)에 유치원에 단체견학을 가는 등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붓을 자주 접하게 하여 붓에 대한 친밀도를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구마노 붓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식

구마노의 붓 장인과 산업 관계자들은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명맥을 이어온 전통산업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고유도(晧堂堂) 공장 사장님과 사카키야마 신사(榊山神社) 관계자, 지쿠호도(竹實堂)의 직원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 즉 외부로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메이크업용 붓을 제작 및 판매하는 고유도 공장의 쓰치야 다케미(土屋武美) 사장님은 실제로 사람들이 붓을 사용하면서 붓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공장과 구마노 붓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붓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마노 붓을 생생히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메이크업용 붓과 서예용 붓을 만드는 공장 지쿠호도의 다케모리 신(竹森臣)씨는 이전엔 정보를 TV나 신문을 통해서 확산하고 수용하였다면 현재는 SNS를 통해서 2030 세대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알아가며 정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에 따라 사카키야마 신사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면서 외부로 홍보하기 위해 일러스트를 그려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었다. 그 밖에도 구마노 붓은 일본 여자 축구대표팀 나데시코 재팬(なでしこジャパン)에게 구마노 붓을 상품으로 주는 등 구마노 붓을 외부로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사진 9] 인터뷰 이후 사카키야마 신사 관계자, 다케모리 씨의 기념 사진 *출처: 2025.07.29 / 필자 촬영

마치며

중국산 나일론 붓의 등장과 동물보호단체와의 마찰로 인해 현재 구마노의 전통 붓 산업은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제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같은 위기에도 전통산업의 명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온 것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대로 이어져 나가려 오늘날에도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본 답사를 통해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실행하고 있는 노력 다섯 가지를 확인했다. 먼저 구마노 지역사회에서 붓 형태의 다양한 조형물들을 마을에 조성하거나 붓 축제를 개최하며 붓을 관광자원으로서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구마노는 독자적인 분업 체계를 구축하였고, 세 번째로 전통 공예품인 구마노 붓을 시대에 따라 개량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네 번째로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마노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박물관 견학을 하거나 학생들과 함께 안내 책자를 편찬하는 등 구마노 붓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 알리기 위한 붓 만들기 체험, SNS 홍보 등의 방식으로 지역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 붓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구마노 붓은 구마노 사람들이 직접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통이자 구마노의 정체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마노는 위와 같은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며 앞으로도 전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